

어린이 책꽂이

▲피어라 뭉치 꽃=이혼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어 상처 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뤘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아들의 속마음과 그들 사이의 우정이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한겨레아이들·8천500원〉

▲동예 번쩍 서예 번쩍 우리나라 지리이야기=

무미건조한 교과서식 체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지리에 관한 전체 내용을 주제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했다. 처음 지리를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리학의 기분을 알려준다.

〈세계잡지·1만2천원〉

▲지혜와 덕으로 삼국통일을 이끈 여왕=신라 27대 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생애를 담았다.

이웃나라의 끝없는 침공속에서도 나라를 온전히 지켜낸 선덕여왕의 지혜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해와 나무·9천500원〉

▲재활용 도시 종이=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 큐멘터리 과학·환경 동화. 쓰레기가 재활용 되면 어떻게 지구의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다루고 있다.

〈현암사·7천800원〉

▲이야기로 쌓는 교양-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등의 명언은 누가 언제, 어디서 했을까?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꾼 역사의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쏟득 쏟아 감칠 맛 나는 조선의 산문



고전 산문 산책 안대회 지음

“큰 비단 한 묶음에, 노랑고 과란 갖가지 물감까지 종이에게 맡겨 서경(西京·평양)에 보내니, 산을 등지고 시내를 앞에 둔 집 한 채를 그려주게. 갖가지 꽃과 천 그루의 긴 대나무를 심게나. 집 중앙에는 남쪽으로 마루를 내고, 그 앞뜰을 넓찍하게 만들어 패랭이꽃과 금선초(金線草)를 심고, 괴석(怪石)과 예스러운 화분을 놓아두게. 동쪽 모퉁이 구석방에는 발을 거두어 두서 천 권을 진열하고...서쪽 방에는 창을 내어 어린 계집종에게 나물국을 끓이고 손으로 술을 걸러서 신선로에 따르게 하거...”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이 쓴 ‘이런 집을 그려주오’라는 산문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은 허균이 절친하게 지내던 화가 이정에게 보낸 편지글로 허균은 그에게 배산임계(背山臨溪)의 멋진 가상 공간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고전의 현대화에 앞장서 온 안대회 교수(성균관대)가 쓴 ‘고전 산문 산책’은 오랜 세월 껍데기를 당해온 조선 후기 선비들의 소품문들을 엮은 책이다. 17세기 허균에서 시작해 18~19세기 박지원·이덕무 등 작가 23명의 소품문 160여편을 우리말로 옮기고 자상하게 해설을 붙였다.

소품문(小品文)이란 말 그대로 짧은 글, 자투리 글로서 오늘날 에세이 같은 것인데, 조선을 지배했던 정형화된 글쓰기인 고문(古文)에서 맛 볼 수 없는 개성과 감수성이 생동한다.

그가 주목한 작가는 노경, 이가환, 이옥, 유득공, 박제가, 정약옹, 홍길주, 조희룡 등. 당시 소품

문은 서정적 내용, 아름다운 문체, 시적 감수성 등이 뛰어났다. 정치나 윤리의 문제보다 개인의 기호와 현실세계의 작은 가치들을 강조했다.

기지와 유머도 두드러진다. ‘책벌레’로 꼽히는 이덕무(1741~1793)가 제자 격인 선비 이서구(1754~1825)에게 보낸 편지가 그렇다.

“조정은 인정머리 없이 세 번이나 단계를 열고도 나를 생각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소.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준 단계를 훔쳐 먹기까지 했소. 친구의 의리란 잘못이 있으면 깨우쳐주는 법이니, 그대가 초정을 단단히 질책하여주시 바라오.”

자신에게 군것질거리를 주지 않은 초정 박제가(1750~1805)를 질책해 달라는 내용이다.

‘일상’에 눈높이를 둔 소품문이 보여주는 조선 후기 생활상도 흥미롭다. 이옥(1760~1815)은 주막의 종이창에 뚫린 구멍을 통해 저잣거리 시장 풍경을 내다본 뒤 “돼지의 네 다리를 묶어서 들쳐 메고 오는 자가 있고, 청어를 주렁주렁 엮어서 오는 자가 있고, 복어를 안고 오는 자가 있고, 대구를 손에 들고 오는 자가 있고--갔다 다시 오는 자가 있고, 왔다가 다시 가는 자가 있고--”라고 적고 있다. 시골 5일장의 모습이 그린 듯 펼쳐진다.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조희룡(1789~1866)의 문장은 유쾌함과 유풍이 넘친다. 음에 걸린 조희룡, “음으로 터득한 삼매경” 운운하며 가려움의 고통을 경쾌하게 풀어낸다. “가려움 너머의 가려움이 있고 가려움 내부의 가려움이 있으며, 가려움이 끝났는데 가려움이 끝나지 않은 것이 있고, 가려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려움이 끝난 것이 있네”란 식이다.



작자미상의 '책가도(冊架圖)'. <휴머니스트 제공>

이렇듯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당대의 현실을 포착한 글들을 읽다보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소품문을 금지한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에 깔린 저의를 가늠해 볼 수 있을듯 하다. 예학논쟁이나 정치담론에서 벗어나 탈이데올로기적이며 다양한 소재를 자유분방하게 쓴 글들은 현대인들의 눈에도 파격이며 ‘모란’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휴머니스트·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박경리 '토지'

추석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때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삶을 곱씹히 돌아다 보며 내 삶의 무게를 달아 본다. 나는 이런 때 박경리의 '토지'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사랑과 사람이 지나야 할 위엄을 생각해 보곤 한다.

'토지'에서 가장 애처로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둘러싼 자연스럽게 용이와 월선이 떠오른다. 월선이 무당의 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그들은 결혼하지 못한 채 서로를 애대개 그린다. 마음에도 없는 결혼생활을 했던 용이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서 아내인 강창택을 잃게 되고 딱한 사연을 지닌 임이네와 연을 맺어 부부로 살게 된다.

한편 월선도 결혼에 실패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용이와의 관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용이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최서희 집안의 불락과 함께 고향을 떠난 용이네는 간도에서 삼촌의 도움을 받아 국밥집을 차린 월선에게 얹혀살게 된다. 용이는 여자에게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결국 그는 아들 흥이를 월선에게 맡기고 임이네와 돌아 뽕포슬로 농사를 지으러 떠난다. 그렇다고 월선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것

'용이·월선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



은 아니다. 어느 날 흥이가 와서 월선이 다 죽어 가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용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건디는 용이의 금욕주의를 내 글재주로서는 도저히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 느끼려면 작품을 직접 읽는 수밖에 없다.

“임자” “아.”

이불자락을 걷고 여자를 안아 무릎 위에 올린다. 쪽에서 가느다란 은비녀가 방바닥에 떨어진다.

“내 몸이 찰제.”

“아니요.”

“우리 많이 살았다.”

“아.”

내려다보고 올려다본다. 눈만 살아 있다. 월선의 사지는 마치 새털같이 가볍게, 용이의 웃기조차 잡을 힘이 없다.

“니 여한이 없제?”

“아. 없입니다.”

“그러면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토지 2부 5권 8장 중에서)

월선이 죽기 직전에 용이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다. 그들은 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슬픔, 분노 같은 어두운 감정이 손에 잡힐 듯한 상태로 뭉친 것이 한이다. 한은 무겁다. 그래서 한을 품은 사람은 말로써 가라앉게 된다. 무거우니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월선은 새털같이 가볍다. 무거운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한(여한)도 없다.

욕망을 초월한 사람은 '새털같이' 가볍게 비상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병든 월선은 곧 죽게 되겠지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담고 감동적이다.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건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다.

고향에서 보름달을 빌며 내 이상의 존재가 되어 달라고 빌어 보자. 그러면 탐욕에서 벗어나 달까지 날 수 있을지 모른다.

이훈 <문학평론가·목포대 교수>



시인 고은의 등단 50주년 기념 산문 시집

허공 고은 지음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고은씨가 기념 시집 '허공'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는 '인간적 해석 영역에서 벗어난 자유의 공간'을 노래한 표제작 '허공'을 비롯해, '밖은 텅 비었고/안은 텅 차 있다'라고 읊은 '울란바타르의 처음', '맨몸/맨턱으로 쓴다'라고 노래한 '허공에 쓴다' 등 모두 107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또 오랫동안 시인이 관심을 가져온 세계의 모습과 비극을 다룬 시들도 눈에 띈다. '스물살'에서는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기억하며, '앙코르와트'에서는 지뢰 때문에 남은 한 쪽 다리를 잃지 않는 게 꿈이라는 아이의 눈망울을 이야기한다. 1958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서사시 '백두산' 등 다양한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오는 2009년 연작시 '만인보'를 완간할 예정이다.

〈창비·9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공미에 탐닉해온 저자의 색깔 녹아나

발랄한 라라 마광수 지음



'나는 아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리'의 작가 마광수(연세대 교수)씨가 첫번째 단편 소설집 '발랄한 라라'를 펴냈다.

'명랑한 에로티시즘'을 표방한 단편집에는 평소 유희주의, 특히 인공미에 탐닉해온 저자의 색깔이 녹아 있는 30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표제작 '발랄한 라라'는 타인의 섹스를 지켜보는 여자가 주인공인 작품으로 거칠 거친, 다소 노골적인 성에 묘사가 가득하다.

또 자신의 작품 '즐거운 사리'를 소재로 삼은 '슬픈 사리를 쓴 죄', '입술·가슴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이야기'를 그린 '이상한 전당포', 마광수 교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자궁 속으로 사라지다', '마광수 교수와의 사랑' '심각해' 등 1966년부터 최근까지 쓴 30편의 소설을 만날 수 있다. 19세 미만의 구독 불가다.

〈평단·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Hearing Aids, Stand Firm in the World!). The ad features a cityscape background with a large hearing aid graphic. Text includes '세계보건기구 추성만 총장 기탁의 힘에' and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It also lists '3세대 소파·세기보청기'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1588-8421 / 02-572-4100' and '02-572-9388'.